

明의 제2차 紅夷砲 구매와 관련된 두 문서: 「報效始末疏」와 「貢銃效忠疏」*

안상현**

1. 머릿말	5. 맷음말
2. 明의 紅夷砲 구매	부록 I. 「報效始末疏」의 譯註
3. 「報效始末疏」	부록 II. 韓霖의 『守圉全書』에 수록되어
4. 『守圉全書』의 「貢銃效忠疏」	있는 「貢銃效忠疏」의 譯註

초록: 본 논문에서는 1629-31년 사이에 明 조정이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에게서 紅夷砲를 구매한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인 「報效始末疏」와 韓霖의 문집에 실려 있는 「貢銃效忠疏」 판본을 역주하였다. 전자는 1628년 9월 15일에 마카오의 議事亭에 의해 작성되어 1630년 1월 17일에 1월 17일에 明 조정에 제출된 보고서이다. 후자는 로드리게스에 의해 작성되어 「報效始末疏」와 함께 제출된 것이다. 전자는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이 明 조정에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 즉 포르투갈인들의 마카오 거주에 대한 법제화와 신홍 네덜란드 세력에 대한 배척의 내용을 담고 있고, 후자는 마카오에서 北京까지 紅夷砲를 운반한 경과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韩霖의 문집에 실려 있는 「貢銃效忠疏」는 紅夷砲 운반을 맡았던 사령관 뱨이쉐이라가 吳橋兵亂의 와중에 둉저우(登州)에서 전사했음을 전하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그 때 둉저우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마카오로 귀환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그러므로 설사 로드리게스를 통해 서양의 흥이포와 염초 제조술을 수입하자는 鄭斗源의 건의가 조선 조정에 의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현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핵심어: 마카오, 포르투갈, 紅夷砲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 연구 사업임(No. 2011-0002839).

**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우주천문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 머리말

1631년에 明에 사신으로 다녀온 정두원(鄭斗源, 1581-1642)은 망원경, 폴리오트식 기계시계, 수발식 소총, 염초 샘플, 마테오 리치가 그린 세계지도, 남북반구가 그려진 천문도, 해시계, 그리고 중국어로 저술된 유럽의 과학과 지리에 관한 서적 네 권, 그리고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이 明 조정에 紅夷砲를 바친 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지니고 왔다(안상현 2009). 여기서 서적 네 권은 『治曆緣起』, 『天問略』, 『遠鏡說』, 『職方外紀』 등이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덩저우(登州)에서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신부인 로드리게스(J. Roidrigues)에게서 선물 받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사에서 조선 문명이 유럽 문명과 만나게 되는 첫 장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鄭斗源이 가져온 서양 물품들에 대한 조선 관료들의 평가는 냉혹하였다. “그의 장계는 지극히 허무맹랑하고, 그가 진상한 물건들도 모두 교묘하고 특이한 점은 있으나 비실용적인 바가 많다. … 작은 총 하나를 얻어온 것으로 그의 벼슬을 높여주는 것은 세상 물정이 이것을 잘못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었다.

정두원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紅夷砲였다. 그의 『西洋國奇別狀啓』에 따르면, 그는 紅夷砲가 서양 사람인 公沙的西勞 등이 明 조정에 바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서양 紅夷砲를 보니 탄환의 크기가 말(斗)만하고 사거리가 80리나 되는 천하에 장대한 무기입니다.”라고 평가하였다. 홍이포는 포신이 길고 포신과 포구의 크기 비율이 클 뿐만이 아니라 탄환이 포구와 밀착하도록 제작하였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고 지향성이 좋았으므로 조준사격을 할 수 있는 신형 대포였다. 조준 사격을 위해서는 목표 지점까지 삼각측량을 하여 발사각도를 조정하여 발사하였다. 발사할 때 폭음이 커서 적에게 위협감도 주었다고 한다. 홍이포의 제원은 각종 기록에 과장이 심하다. 정두원이 보았던 紅夷砲의 제원은 정보가 부족하여 알아내기 어렵다. 다만 이 홍이포는 케ル버린(culverin)이라는 신형 대포임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黃一農(2003)이 조사한, 1620년경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운용하던 함선에 장착된 케ル버린의 제원을 참고해 보자. 케ル버린은 대체로 무게 약 4,000파운드, 탄환 약 15파운드, 길이 약 300cm, 구경이 약 12cm였다. 포

1) 院啓, 陳慰使鄭斗源狀啓, 殊極譏謔, 其所上進之物, 徒爲巧異, 無所實用者多, 而盛有所稱引, 其不識事理, 甚矣. 此誠可罰而不可賞, 而一小砲覓來之故, 至加資級, 物情皆以爲非, 請還收加資之命(『승정원일기』 仁祖 9년 7월 13일).

신의 길이와 구경의 비가 25정도이다. 사정거리는 약 1.5km였던 것으로 보인다. 明代에 1里=576m이므로, 1.5km는 2.6里에 해당한다. 정두원의 표현이 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두원은 자신에게 이러한 정보를 준 로드리게스에 대해, “천문학과 砲術에 정통하며, 明 조정의 관원이 되었고 軍門에서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지금 登州에 있는 孫元化의 軍門에 머물러 있고, 臣이 이미 그와 더불어 안면이 있사오니, 뒷날 軍門 앞으로 자문을 보낼 때 겸하여 편지 한 통을 덧붙여서 그 법을 구한다면 紅夷砲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로드리게스로부터 紅夷砲 제조법과 사용법을 배울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鄭斗源의 건의에 대해 어떠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1637년(仁祖 15년)에 발발한 丙子胡亂에서 왕실 인사들과 귀족 자제들이 피난했던 강화도가 清軍에게 함락당할 때 清軍이 사용한 紅夷砲가 큰 역할을 했고,²⁾ 仁祖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던 때에도 清軍의 紅夷砲에 대해 조선군의 화력이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³⁾. 또한 紅夷砲의 국산화는 1731년(英祖 7년)에 와서야 이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때 제작된 紅夷砲가 마카오 포르투갈

2) “군사 3만을 三板船 수십 척에 실은 뒤 갑곶진에 주둔하다가, 잇달아 紅夷砲를 발사하여 조선군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강화도에 상륙하였다.”(『조선왕조실록』仁祖15년 1월 22일); 그러자 그들이 우리 국왕의 친속(親屬)과 경외(京外)의 자녀, 금백(金帛)과 공사(公私)의 재곡(財穀) 모두가 강도(江都)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작은 배 80여 척을 건조(建造)한 뒤 수레에 싣고 육지로 운반하여 출지에 갑곶진(甲串津) 하구로 들이닥치면서 불의(不意)의 기습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홍이포(紅夷砲)를 쏘아 주사(舟師)를 격파한 뒤 잇따라 배를 타고 건너 왔는데, 그 빠르기가 마치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강도(江都)의 수신(守臣) 모두가 풍문만 듣고도 무너져 달아나고 말았는데, 그 때문에 세자빈과 왕자, 군(君) 및 그 친족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혔습니다(택당선생집 제7권 정문(呈文) 平安監司呈文; 공유덕·경중명 등이 이끄는 水軍과 紅夷砲의 화력이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함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명기(2005)를 참고하라.

3)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 병자년에 紅夷砲가 또한 行宮 앞에 떨어졌다고 한다.”(上曰: “…丙子年紅夷砲, 亦落於行宮前云.”) 『승정원일기』英祖 19년 5월 19일)

4) 훈련도감에서 銅砲 50개와 紅夷砲 2개를 주조하였는데, 紅夷砲는 탄환 도달거리는 10여 리가 되고 朝鮮에서 새로 제작한 것이다(『조선왕조실록』英祖 7년 1731년 9월 21일); 趙命臣, 以訓鍊都監言啓曰, 虹夷砲二門, 中銅砲五十門, 自本營纔已新造畢役, 當爲試放, 而露梁與銅雀, 江水漲溢, 虹夷砲, 卽我國新制, 而行九十餘里, 砲聲與他有別, 他無可試之處. 今日大將臣張鵬翼, 出往往十里車峴近處, 試放後封進, 以爲睿覽之意, 敢啓. 傳曰, 知道(『승정원일기』英

인들이 明 조정에 제공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丙子胡亂 시기에 紅夷砲가 전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에서 확인된다. 즉 1779년(正祖 3년)에 正祖가 남한산성에 친립하여 특별 무과 과거 시험을 보고 火器를 열병한 사실에 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이다⁵⁾.

正祖: 그러면 將臺 위에서 호령하면 일을 거행할 수 있는가?

서명웅: 그렇습니다.

(임금께서 선전관에게 호령할 것을 명하였다. 선전관이 軍器寺를 불러 신호포를 1 발 발사하도록 하니, 포성이 나고 火箭이 일제히 발사되었다.)

正祖: 이 방법은 족히 천하의 최고라 할 만하다. 이것은 明의 장수 袁崇煥이 寧遠城에서 시험했던 紅夷砲의 遺製인가?

서명웅: 이것은 곧 그 때 전래된 방법이라 합니다.

正祖: 丙子年에는 이 방법은 아직 나오지 못했으므로 전투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진실로 한탄스럽고 애석한 일이다.

서명웅: 그렇습니다. 그때 만일 이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오랑캐 군대가 어찌 감히 성 아래로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기록으로부터 로드리게스를 통해 紅夷砲 제작법을 습득하자는 鄭斗源의 건의가 시행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사정거리가 길고, 조준 사격이 가능하며, 포성이 커서 적을 위압할 수 있는 신무기였던 紅夷砲는, 조선에서는 1731년에 이르러서야 2기가 자체 제작되었다. 이 紅夷砲는 훈련도감에 배치되어 있었다⁶⁾.

鄭斗源의 건의가 조선 조정에 의해 채택되어 추진되었더라면 과연 실현될 수

祖7년 8월 2일); 李聖龍, 以訓鍊都監言啓曰, 本局新備中, 銅砲五十門, 虹夷砲二門及所載車子五十二輛, 嘉善權和經, 折衝李松老, 閑良朴世徵·權以經·全重仁等, 備給若干物力, 使之經紀鑄成, 既已畢役。故大將臣張鵬翼, 頃日出往往十里車峴近處, 親爲試放, 則中銅砲, 行丸二千餘步, 虹夷砲, 行丸十餘里。此實緩急可用之具。而虹夷砲, 卽我國新製, 別爲封進, 以爲睿覽後, 留上營門之地。而權和經等, 措辦倭銅鎗, 竝四千餘斤, 正鐵二千餘斤, 創造戰具之良器。其所盡心國事, 誠爲可嘉, 不可無褒賞激勸之道。令該曹考例, 稟處,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英祖7년 9월 21일).

5) 丙亥八月初八日卯時, 上御南漢鍊兵館, 親臨文武科別試入侍時, ……上曰, 然則有臺上號令, 然後可以舉行乎? 命膺曰, 然矣。上命宣傳官號令, 宣傳官呼軍器寺, 放信砲一聲, 砲聲出而火箭齊發。上曰, 是法足可爲天下之最矣。此是明將袁崇煥, 試於寧遠之紅夷砲遺製乎? 命膺曰, 此乃其時傳來之法云矣。上曰, 丙子年則此法未及出, 故不得用之於戰場, 誠可歎惜。命膺曰, 然矣。其時若用此法, 則虜兵, 何敢近城下乎?(『승정원일기』正祖3년 8월 8일)

6) 만기요람, 군정편 2, 훈련도감, 군기(軍器).

있었을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방증 자료로서 소위 제2차 紅夷砲 구매의 始末과 紅夷砲 배송 과정을 담은 두 보고서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 하나는 「報效始末疏」로서, 제2차 紅夷砲 구매에 관해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이 서술하여 明 조정에 제출한 공문서이다. 다른 하나는 「貢銃效忠疏」로서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이 明 조정의 요청에 응하여 火器와 砲兵을 제공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鄭斗源이 로드리게스로부터 받아온 「貢銃效忠疏」는 『西洋統領公沙效忠紀』라는 제목으로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었다. 外奎章閣의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원문이 역주되었다(안상현 2010). 본 논문에서는 韓霖의 요약본 「貢銃效忠疏」을 소개한다. 이 문서에는 기존의 판본에 비하여 紅夷砲를 운반한 公沙의 西勞와 로드리게스의 登州에서의 행적이 추가로 언급되어 있다. 2장에서는 明의 紅夷砲 구매와 관련된 역사를 간단히 서술하여, 두 문서의 이해를 돋고, 3장과 4장에서는 두 문서를 각각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2. 明의 紅夷砲 구매

마카오(澳門)는 16~17세기 포르투갈 제국의 발전을 이끄는 해외 확장 거점의 하나였다⁷⁾. 포르투갈인은 明의 正德 연간인 1517년에 처음 중국에 도달하였다. 3장에서 분석하고 부록I에 해제를 제시한 『報效始末疏』에 따르면, 포르투갈인들은 正德年間(1506-1521)에 비로소 廣東 연안에 도달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일찍이 중국 沿海에 하나의 무역 거점을 마련하여 그 거점을 통하여 동아시아와의 무역을 발전시키려하였다. 포르투갈인들은 明이 해적을 쫓아내는 일을 돋기도 하고 龍涎香을 바치거나 중국 조정의 관원들을 매수하는 등 40여년의 노력을 통해, 마침내 1557년(嘉靖 36)에 廣東 지방 정부의 허락을 얻어서 마카오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이후 포르투갈인은 마카오를 明과 日本 그리고 필리핀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왕래하는 무역망의 중심으로 삼아 막대한 상업적 이윤을 획득하였다. 비록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1582년(萬曆 10)에 廣東

7) 마카오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黃啓臣 & 鄭煒明(1994)와 湯開建 & 趙殿紅(2005)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지방 정부로부터 얻었고 심지어 조정의 묵인도 얻었으나, 明 조정은 포르투갈인들에게 정식 공문서를 발부하여 포르투갈인들의 마카오 거주를 합법화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포르투갈인의 마카오 거주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明 조정에는 포르투갈인들의 마카오 거주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여 몇 차례에 걸쳐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였다. 마카오 개척의 초기에, 明 조정과 마카오 포르투갈과의 관계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지만, 萬曆 후기에 이르러 쌍방 관계는 극도로 긴장되었으며, 포르투갈인들을 마카오에서 쫓아내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갔다. 1616~1617년(萬曆 44-45)의 南京教案은 곧 그 긴장 관계의 극적인 한 사례였다. 그러므로 1620년대 당시의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에게 있어서, 明 조정으로부터 마카오 거주를 허가하는 정식 공문서를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 일어난 해상강국 네덜란드가 동아시아 무역을 개시하였는데, 포르투갈인이 마카오에 들어간 이후 해외 무역에서 막대한 상업적 이윤을 얻는 것을 보고, 네덜란드인들은 마카오에 있는 포르투갈인들을 대신하기를 희망하였다. 1601년에서 1627년에 이르는 시기에, 네덜란드는 여러 번 마카오를 침공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카오를 빼앗으려는 야심은 시종 식을 줄 몰랐다. 따라서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은 동아시아 무역권을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1616년 누르하치가 後金을 건국하였고, 1619년에 사르후 전투에서 明軍이 대패하여 遼東이 後金의 손에 넘어갔다. 明에서는 새로 思宗이 즉위하여 天主教徒인 徐光啓가 다시 등용되었다. 1621년(天啓 1)에 徐光啓, 李之藻, 楊廷筠, 孫元化 등은 어떻게든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의 군사기술적 우세를 이용하여 明軍의 後金軍에 대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積蓄 없는 상소로써 明 조정을 설복하여, 마침내 마카오에서 大砲를 구매하고 포병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明 조정의 제1차 紅夷砲 구매’이다. 『報效始末疏』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徐光啓와 룽고 바르디(龍華民)의 전의로 張燾와 孫學詩 등으로 하여금 마카오에서 紅夷砲를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紅夷砲 4문을 바치려 하였으나 지체되다가, 1620년에 後金이 遼東을 함락하자 李之藻가 재차 전의하여 구매를 재촉하자,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은 廣東 앞바다에서 격침된 네덜란드 전함에서 건져 올린 26문과 함께 北京으로 보냈다.”라고 적고 있다.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도 역시 이 기회를 틈타 중국 조정에 대한 자신들의 영

향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고, 나아가 수십 년에 걸쳐 내려온 미해결 과제인 포르투갈인들의 마카오 거주에 대한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이 1620년(萬曆 48) 이래로 끊임없이 明 조정을 향해 西銃과 西兵을 제공한 가장 주요한 목적이었다.

1622년(天啓 2)에 사르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遼東의 지배권을 얻은 後金은 遼陽과 廣寧을 점령하고 山海關을 넘보고 있었으므로 北京도 위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袁崇煥은 홀로 遼東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山海關의 방위를 지원했다. 당시 明軍은 山海關에만 주력하고 있었으나, 袁崇煥은 山海關의 북쪽에 寧遠城을 쌓고 마카오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紅夷砲를 배치하였다. 1626년(天啓 6) 초에 누르하치(1559-1626)가 遼河를 건너 寧遠城을 공격해 왔으나, 袁崇煥은 우월한 화력을 앞세워 後金軍을 물리쳤다. 1626년 8월에 누르하치가 사망하였는데 전투 중 입은 부상 때문이었다고 한다. 袁崇煥은 1627년에는 寧遠城과 錦州城에서 後金의 皇太極(1592-1643)의 공격도 물리쳤다.

『報效始末疏』에는 天啓 5년(1624년)에 袁崇煥이 紅夷砲로 後金軍을 무찔렀는데 여기에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이 바친 紅夷砲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의 연도는 착오가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紅夷砲가 실전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였으므로, 明 조정은 제2차 紅夷砲 구매를 하게 되었다. 이 제2차 紅夷砲 구매의 始末에 관해 서술하여 明 조정에 제출된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의 공문서가 바로 『報效始末疏』이고,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이 明 조정의 요청에 응하여 火器와 砲兵을 제공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貢銃效忠疏』이다.

3. 『報效始末疏』

『報效始末疏』는 明 조정의 소위 제2차 紅夷砲 구매와 관련하여, 마카오의 議事亭이 군사사절단을 통하여 明의 조정에 바친 전체 1,355자의 보고서이다(湯開建 & 趙殿紅 2005). 이 보고서는 1628년(崇禎 1) 9월 15일에 작성되어, 明 조정이 요청한 紅夷砲과 포격 훈련을 담당할 교관을 인솔하였던 곤살버쉬 레이쉐이라(公沙的西勞)가 北京으로 가서 1630년(崇禎 3) 1월 17일에 明 조정에 제출한 것이다. 이 상소문과 동시에 제출된 것이 『貢銃效忠疏』인데, 예수회 선교사 조앙 로드리게스(陸若漢)⁸⁾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전 연구(안상현 2010)에서 역주와 해설을

표 2. 제2차 紅夷砲 구매 때, 明 조정에 파견된 군사사절단 인원. Cooper(1974)가 정리한 것과 「報效始末疏」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Michael Cooper(1974)			「報效始末疏」		
role	Portuguese name	Korean Pronunciation ⁹⁾	role	No.	Chinese name
Commander	Gonzalves Teixeira	곤살버쉬 페이쉐이라	統領	1	公沙的西勞
	Laurenzo de Lis Veglio	로伦초 데 리스 베글리오	副統領	1	魯未略 ¹⁰⁾
Gunners	Pedro del Quintel Pedro Pinto Francisco Aranda Francisco Correa	뻬드루 텔 키넬 뻬드루 뻔뚜 프란시쉬쿠 애란다 프란시쉬쿠 꼬헤야	銃師	4	伯多祿金答 ※獨命峨 ¹¹⁾ 拂朗亞蘭達
			副銃師	2	結利窩裏 etc.
Interpreters	Simao Coelho Horatio Nerete	시마옹 꾸엘류 오라시우 네래떼*	通官 通事	1 1	西滿故未略 屋臘所羅列弟
			匠師	4	若盞的西略 etc.
			駕銃手	15	門會 etc.
			僕伴	3	幾利拔黃 etc.
	João Rodrigues	조앙 로드리게스	掌教	1	陸若漢

참고할 수 있다.

마카오의 議事亭은 1628년(崇禎1)에 明에 西銃과 西兵을 바치는 기회를 틈타 상소문을 제출하여, 마카오의 포르투갈인들이 明 조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현안인 마카오 거주의 합법화 문제 그리고 새로 대두한 네덜란드인(紅夷)들에 대한 견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湯開建 & 趙殿紅(2005)에서 자세하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 明 조정이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에게 紅夷砲을 구매한 역사에 대한 것은 黃一農(1996), 黃一農(2004), 그리고 歐陽琛 & 方志遠(2006)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8) 실제 포르투갈어 발음은 '호드리게스'이지만 기존 연구 논문들에서 모두 '로드리게스'로 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편의상 '로드리게스'로 한다.

9) 포르투갈어 발음에 대해 조언해준 Universidade de Aveiro의 Vitor Bonafacio 교수에게 감사한다.

10) 「報效始末疏」에는 나오지 않으나 韓霖의 『守圉全書』에 인용된 「貢銃效忠疏」에 언급된 인물이다.

11) 이 「報效始末疏」의 다른 부분에 언급되어 있으나 누군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報效始末疏」의 내용에는, 제2차 紅夷砲 구매시 마카오에서 明 조정에 파견된 군사사절단의 규모와 인원 명단을 알 수 있다. Cooper(1974)가 정리한 마카오 포르투갈 측의 사료에서도 같은 명단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한 것이 표1이다. 이것으로부터 안상현(2010)의 「貢銃效忠疏」 역주에서 “臣漢臣公沙親率銃師伯多祿·金荅等造藥鑄彈”의 부분이 번역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伯多祿·金荅’는 두 사람이 아니라 ‘뻬드루 텔 퀸텔(Pedro del Quintel)’이라는 한 사람이다. 董少新 & 黃一農(2009)도 ‘伯多祿·金荅’를 두 명으로 인식하여 각각 ‘伯多祿’는 Pedro Pinto로 보고 金荅는 Pedro del Quitel로 보았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 포르투갈인들의 이름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름과 성의 두 부분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伯多祿·金荅’는 한 사람의 이름과 성으로 보아야 한다.

4. 『守圉全書』의 「貢銃效忠疏」

韓霖¹²⁾은 「貢銃效忠疏」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에 자신의 경험담과 회고를 담았다. 이 문서의 원문은 四庫禁燬書叢刊 補編의 第32冊의 479쪽에 실려 있는 韓霖의 『守圉全書』의 卷一에 실려 있는 것인데, 明末清初의 문헌이기 때문에 禁書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³⁾. 이러한 정황은 원문에 滿洲族을 지칭하는 ‘夷’라는 글자가 빈칸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2) 韓霖(1601-1641)은 字를 雨公이라 하고 號를 寓菴이라 하였다. 산시(山西)의 지양저우(絳州) 출신으로서 학자이자 관료였다. 그는 1617년에 生員이 되었고 1621년에 進士가 되었다. 베이징에 있는 동안 徐光啓와 알폰소 바뇨니(Alfonso Vagnoni 高一志, 1566-1640)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에게 세례를 받아 세례명을 Thomas라 하였다. 그의 가문에는 藏書가 많았는데, 그는 여러 곳을 여행하며 그 규모를 늘렸다. 그는 고향의 많은 친척들을 카톨릭으로 개종하도록 이끌었다. 그와 그의 고향 친구인 뚜안군(段袞, 字는 九章)은 바뇨니가 산시성에 포교를 할 때 그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었다.

13) 湯開建, 趙殿紅, 2005 「委黎多《報效始末疏》——一份新發現的澳門早期歷史文獻」, 『澳門研究』 26, 169-175면; 이들은 臺灣의 中央研究院 傅斯年圖書館 善本書室에 소장된 明崇禎9年에 간행된 『守圉全書』에 수록된 陸若漢의 「貢銃效忠疏」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四庫禁燬書叢刊 補遺』의 卷32에 수록되어 있는 『守圉全書』의 卷三之一은 「制器篇」은 맞으나 해당 문헌은 찾을 수 없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새로 서술한 것이 卷一에 있는데 그 제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卷首에 수록된 인용서목에 「公沙效忠紀」라는 제목이 나온다. 傅斯年圖書館의 판본과 四庫禁燬書叢刊補遺의 판본이 서로 다르지 않나 생각된다(『四庫禁燬書叢刊補遺』의 해당 卷을 구해준 한국천문연구원의 윤양노 씨에게 감사한다).

韓霖의 「貢銃效忠疏」와 湯開建 & 趙殿紅(2005)이 소개한 「貢銃效忠疏」에 서술된 떼이쉐이라와 로드리게스의 여정은 서로 일치한다. 韓霖의 「貢銃效忠疏」에 서술된 여정은 다음과 같다. 모두 1629년(崇禎2)의 일이고, 날짜는 大統曆에 의한다.

- 1) 2월 2일, 廣州 출발.
- 2) 10월 2일, 濟寧 도착. 己巳之變 소식을 들음.
- 3) 11월 23일, 涿州에 도착.
- 4) 11월 26일, 紅夷砲를 재촉하는 聖旨를 받음.
- 5) 12월 1일, 北京에 인접한 琉璃河에 도착하였으나, 北京을 가는 길목에 위치한 良鄉이 後金軍에게 점령되었음을 알고 涿州로 회군.

기준에 소개된 「貢銃效忠疏」(안상현 2010)에 더하여 이 문건에서 추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2차 紅夷砲 구매에서 마카오 군사사절단을 이끌었던 곤살버쉬 떼이쉐이라의 그 후 행적에 대한 것이다. 즉, 떼이쉐이라는 1629년에 紅夷砲를 明 조정에 전달한 후, 山東의 登州에서 순국하여 參將에 追贈되었다는 것이다¹⁴⁾. 董少新 & 黃一農 (2009)에 의하면, 그 밖에 魯未略(Laurenzo de Lis Veglio)는 副統領이었는데, 떼이쉐이라와 마찬가지로 登州에서 포병 훈련에 종사하다가 전사하여 明 조정으로부터 遊擊에 追贈되었고, 또한 銃師인 拂朗·亞蘭達(Franciso Aranda)도 登州에서 전사하여 守備에 追贈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登州에서 전사한 과정은 거기서 탈출한 로드리게스 등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Cooper(1974)가 소개한 당시 기록에 따르면, 로드리게스가 登州에서 조선의 사절인 鄭斗源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준 이후, 떼이쉐이라가 이끄는 포르투갈 군사사절단은 登州에 머물며 포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1631년 閏 11월 23일(陽 1월 19일)에 孔有德과 耿仲明이 휘하의 遼東兵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 遼東兵들은 원래, 조선의 檀島를 불법 점령하고 세력을 떨치던 毛文龍의 부하들이었는데, 袁崇煥에 의해 毛文龍이 주살된 후, 登州의 孫元化의 부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1631년 8월에 皇太極이 이끄는 清軍이 大凌河城을 공격하자 登州의 병력이 구원군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행군 도중에 吳橋縣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¹⁵⁾ 이 사건을 吳橋兵亂이라고 부른다.

반란군은 산동(山東)의 여러 城들을 점령하고 마침내 登州를 포위하였다. 登州

14) 公沙後守登州, 以死報國, 贈參將.

15) 崇禎4年 閏11月 丁卯, 孔有德, 吳橋反(明史 卷23, 本紀第23, 莊熱帝).

의 明軍과 마카오 교관들은 한 달이나 籠城을 하였다. 그러나 페이쉐이라가 성벽에서 수류탄을 던지다가 화살에 맞아 이튿날 죽었고, 다른 두 명의 포르투갈 교관도 또한 전사했다. 이러한 사태에 당황한 성안의 일부 병사들이 내옹하여 1632년 1월 3일(陽 2월 22일)에 은밀히 登州의 성문을 열었다¹⁶⁾. 반란군들이 성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지켜본 71세의 로드리게스와 10여 명의 포르투갈 사람들은 더 이상의 항전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야음을 틈타 성벽 위에서 아래의 눈 쌓인 곳으로 뛰어 내려 도주하였다. 그들은 北京으로 갔다가, 1633년 2월(양력)에 마침내 마카오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로드리게스는 얼마 뒤인 1633년 8월(양력)에 숨을 거두고 만다.

로드리게스가 마카오로 귀환한 뒤인 1633년 2월에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강재언 1998), 로드리게스는 정두원을 통해 조선 선교를 기획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鄭斗源도 로드리게스를 통해 紅夷砲와 火藥의 제조법을 배우자고 仁祖에게 건의했었다. 이러한 모든 교류의 기회가 吳橋兵亂으로 인하여 봉쇄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반란을 일으킨 遼東兵들은 결국 後金軍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 결과 登州에 보관되어 있던 紅夷砲 20여 門과 西洋砲 300門을 비롯한 수많은 火器가 後金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後金은 이미 1631년에 紅夷砲를 자체 제작하게 되었으며, 새로 합류하게 된 遼東兵들은 火器 전문가인 孫元化 휘하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한 185척의 함선을 인솔하고 있었다. 이로써 明은 後金에 대한火力의 우위를 상당히 앓게 되었다. 또한 훗날 1636년의 丙子胡亂에서 清軍은 吳橋兵亂의 주인공인 孔有德과 耿仲明이 이끄는 水軍을 강화도 상륙 작전에 투입하였다.¹⁷⁾ 또한 이때 강화도의 갑곶진에 상륙한 清軍이 紅夷砲를 발사하여 조선군의 접근을 막았고 또한 강화성 함락에도 紅夷砲의 화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⁸⁾ 그 결

16) 崇禎 5年 1月 辛丑, 孔有德陷登州(明史 卷23, 本紀第23, 莊熱帝).

17) 鳴吉曰, 渠言修飾水上船, 將向江都云, 渠何敢水上行舟乎? 且與孔耿同事, 持紅夷砲而來云, 此言非誇大之言(『승정원일기』 仁祖 15년 1637년 1월 17일); 그러자 그들이 우리 국왕의 친속(親屬)과 경외(京外)의 자녀, 금백(金帛)과 공사(公私)의 재곡(財穀) 모두가 강도(江都)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작은 배 80여 척을 건조(建造)한 뒤 수레에 싣고 육지로 운반하여 출지에 갑곶진(甲串津) 하구로 들이닥치면서 불의(不意)의 기습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홍이포(紅夷砲)를 쏘아 주사(舟師)를 격파한 뒤 잇따라 배를 타고 건너 왔는데, 그 빠르기가 마치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강도(江都)의 수신(守臣) 모두가 풍문만 듣고도 무너져 달아나고 말았는데, 그 때문에 세자빈과 왕자, 군(君) 및 그 권속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혔습니다(택당선생집 제7권 呈文/平安監司呈文).

과 강화도에 피난하고 있던 봉림대군과 조선 왕실과 귀족들의 부인들이 포로가 되었다. 이미 1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이것은 남한산성에서 瓠城하던 仁祖가 항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 맷음말

본 논문에서는 明의 제2차 紅夷砲 구매와 관련된 두 문서를 소개하였다. 「報效始末疏」는 제2차 紅夷砲 구매 및 마카오 군사사절단 파견의 始末을 기록한 보고서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2차 紅夷砲 구매 및 마카오 군사사절단의 旅程에 관해 보고한 「貢銃效忠疏」이다. 후자의 원본은 이미 안상현(2010)이 소개하고 역주를 하였으며, 본 논문에 소개한 문서는 韓霖이 요약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곁들인 문헌이다. 「報效始末疏」의 내용으로부터 군사사절단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貢銃效忠疏」의 번역(董少新 & 黃一農 2009, 안상현 2010)에서 ‘伯多祿·金荅’를 두 사람으로 인식한 것은 잘못이고 ‘뻬드루 텔 칸텔(Pedro del Quintel)’이라는 한 사람임을 확인하였다. 韩霖의 「貢銃效忠疏」는 기존에 소개된 「貢銃效忠疏」의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테이谢이라(Teixeira)와 로드리게스가 이끌었던 마카오 군사사절단이 鄭斗源과 만난 이후의 행적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로드리게스가 1633년 마카오로 귀환한 뒤에 작성한 문서와 조선과 明의 史書 등을 통해, 鄭斗源과 로드리게스의 만남 직후, 吳橋兵亂이 발발함으로써, 테이谢이라 등은 전사하고 로드리게스 등은 간신히 탈출하여 마카오로 귀환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로드리게스와의 사적인 인맥을 통해 紅夷砲와 염초 제조법 등의 서양 과학기술을 수입하자는 鄭斗源의 진의가 채택되었더라도 실행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吳橋兵亂 때 遼東兵들이 水軍과 紅夷砲 등을 가지고 後金에 투항하였고, 그것이 丙子胡亂의 승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살펴보았다.

강재언(1998)은 로드리게스가 鄭斗源을 통해 조선에 보내준 귀중한 서양문물에 대해서 조선의 위정자들이나 학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실용화하기 위해 연구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화이(華夷) 사상의 병폐라고 하였고,

18) 『조선왕조실록』, 仁祖 34卷, 15年 1月 22日(壬戌).

또한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영국인 선장 애덤스를 고문으로 등용하여 서양에 대한 통상 및 외교 정책을 크게 전환시킨 사실과 비교할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화약의 주원료인 염초였으므로(허태구 2002), 鄭斗源이 가져온 서양 문물은 조선의 위정자들이나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웠다(안상현 2009), 더군다나 鄭斗源이 들여온 것은 紅夷砲라는 위력적인 신무기(山口正之 1931)가 아니라, ‘紅夷砲題本’이라고 설명된 「西洋統領公沙效忠紀」와 부식돌로 점화되는 신식 소총에 불과하였다(안상현 2009). 따라서 조선의 위정자들은 鄭斗源이 가져온 물품들이 신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용적이지는 못하다고 평가한 것이었다. 鄭斗源은 紅夷砲와 焰硝의 제조법을 덩저우(登州)에 머물러 있던 로드리게스를 통해 배우자고 전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吳橋兵亂으로 인하여 실행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러므로 鄭斗源의 서양 문물 수입이 조선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 까닭을 화이(華夷) 사상의 병폐에서 찾을 수도 없고 이것이 일본의 역사와 비교할 때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재언(1998)은 鄭斗源이 가져온 한역서양서들과 각종 문물들 각각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한 언급은 다른 몇몇 연구자들도 시도하였으나(예. 전용훈 2004) 약간의 오류와 혼동이 있었던 것을, 안상현(2009)이 가장 원전에 가까운 『西洋國奇別狀啓』를 분석함으로써 수정하였다. 또한 鄭斗源이 가져온 漢譯西洋書들 중에서 “『天問略』과 『職方外記』를 읽어 보았지만 그 나머지는 보존된 것이 없다.”는 후대의 李灝(1681-1763)의 언급이 자주 인용되곤 하지만(예. 박천홍 2008, 151면), 전용훈(2004, 52면)이나 한영호(2005, 338면)¹⁹⁾도 지적한 것처럼, 鄭斗源이 받아온 漢譯西洋書들을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나 후대 지식인들이 얼마나 열람했고 어떻게 수용했는지는 잘 연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부록 I과 부록 II는 각각 「報效始末疏」와 『守圉全書』에 실려 있는 「貢銃效忠疏」의 역주이다. 이 두 문서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사건들의 年表를 작성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마카오의 역사에 대해서는 黃啓臣

19) 한영호(2005)는 “이때(鄭斗源의 서양 문물 전래 당시 - 역자주) 전해진 품목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활용된 흔적을 남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날의 이용을 위하여 제대로 보관되지도 하였던 것 같다.”라고 하였으나, 『治曆緣起』와 『西洋統領公沙效忠紀』가 外奎章閣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들이 활용되지 못한 까닭은 아마도 외부 반출이 잘 안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안상현 2010).

& 鄭煥明(1994)를 참고하고, 이 문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湯開建 & 趙殿紅 (2005)을 참고하고, 紅夷砲 구매와 관련된 역사적 서술은 黃一農 (1996)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1517년. 포르투갈 국왕, 피레즈(Pirez)를 明에 파견.
- 1553(嘉靖32). 포르투갈인이 海道副使 汪栢에게 매년 500-1,000냥의 뇌물을 주고 마카오에서의 무역을 허가 받음.
- 1571년. 汪栢, 海道副使를 떠남.
- 1573년. 매년 500냥의 銀을 地租로 내고 마카오를 빌려 씀. 1849년까지 지속됨.
- 1616년. 누르하치, 後金 건국.
- 1618년. 누르하치, 七大恨書 반포.
- 1619년(天啓7) 3월. 사르후 전투. 後金軍 대승.
- ____ 10월 15일. 徐光啓, 詈事府少詹事 兼 河南道 監察御使가 됨.
- ____ 10월 31일. 徐光啓, 明의 神宗에게 佛狼機砲 구입 및 포르투갈 포수 초빙을 제안.
- 1620년. 李之藻와 楊廷筠, 張燾를 마카오에 파견하여 紅夷砲 4門을 구입. 마카오에서는 포수 7인, 통역 1인, 하인 16인을 明에 파견. (제1차 紅夷砲 구매)
- 1623년. 徐光啓 해임.
- 1628년. 徐光啓 재기용. 徐光啓, 마카오에서 大砲를 구매할 것을 건의.
- ____ 7월. 李逢節, 王尊德, 마카오에서 포병과 紅夷砲를 구매.
- 1629년(崇禎2) 1월. 徐光啓, 마카오에서 佛狼機砲 구매할 것을 촉구. 紅夷砲 10門 구매. (제2차 紅夷砲 구매)
- ____ 4월. 徐光啓, 禮部左侍郎으로 승진.
- ____ 6월. 袁崇煥, 毛文龍을 참수.
- ____ 10월 27일(陽 12월 11일). 己巳之變 발발.
- 1630년(崇禎3) 1월 3일(陽 2월 14일). 레이쉐이라 및 마카오 군사사절단, 北京 입성.
- ____ 4월 26일 (陽 6월 6일). 徐光啓, 美雲龍, 로드리게스, 徐西滿 등을 마카오로 파견하여 紅夷砲을 구매하고 포병 교관을 모집하자고 전의함. (제3차 紅夷砲 구매)
- ____ 5월 13일(陽 6월 23일). 後金軍, 후퇴.
- ____ 8월 16일(陽 9월 22일). 袁崇煥, 처형됨.
- ____ 7월 17일(陽 8월 24일). 鄭斗源, 朝鮮 출발.
- ____ 9월 20일(陽 10월 25일). 鄭斗源, 登州 도착.
- ____ 9월 25일(陽 10월 31일). 마카오, 포병 100명 이상과 조수 200여 명을 明에 파견.
- 1631년(崇禎3) 1월 後金 대장군포 자체 제작.

- ___ 2월. 盧兆龍이 孫元化를 탄핵. 마카오 군사사절단 南昌에서 마카오로 회군.
 - ___ 3월 後金 紅夷砲 자체 제작.
 - ___ 3월 5일(陽 4월 6일). 로드리게스, 北京으로 귀환.
 - ___ 6월 24일 (양 7월 22일). 鄭斗源, 朝鮮 귀환.
 - ___ 8월 後金軍 4만이 明의 大凌河城을 포위하자 明軍은 祖大壽 휘하의 1만5천명으로 대항.
 - ___ 10월 12일 後金軍이 紅夷砲 6문과 대장군포 54문으로 3일 동안 맹폭하여 우자장대 함락.
 - ___ 10월 28일 祖大壽 항복.
 - ___ 윤11월. 耿仲明과 孔有德의 반란(吳橋兵亂).
- 1632년(崇禎4) 1월 3일(陽 2월 22일). 반란군, 登州 함락. 떼이쉐이라 등 전사. 로드리게스 탈출.
- 1633년 로드리게스 마카오에서 사망.
- 1636년 12월. 丙子胡亂.

논문제투고일(2011. 10. 7), 재심사일(2011. 11. 25), 게재확정일(2011. 11. 30)

참고문헌

- 강재연, 『서양과 조선』, 서울:학고재, 1998, 42-56면.
- 안상현, 「한국사 최초의 망원경 I. 鄭斗源의 「西洋國奇別狀啓」」, 『한국우주과학회지』 25, 2009, 237-266면.
- 안상현, 「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었던 천문학 관련 도서」, 『奎章閣』 37, 2010, 289-320면.
-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49-54면.
- 한명기, 「17세기 초·중반 朝清關係와 貳臣」, 『북방사논총』 8, 2005, 247-283쪽
- 한영호, 「서양과학의 수용과 조선의 신법 천문의기」, 『한국실학사상연구 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2005, 338면.
- 허태구, 「조선의 염초무역과 화약제조법의 발달」, 『한국사론』 47, 2002, 203면.
- 黃啓臣, 鄭煒明, 『澳門經濟四百年』, 澳門: 澳門基金會, 1994 [譯書: 黃啓臣, 鄭煒明]

(박기수, 차경애 譯), 『마카오의 역사와 경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黃一農, 「天主教徒孫元化與明末傳華的西洋火砲」,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67-4, 1996, 911-946면.

黃一農, 「清初三順王(孔有德·耿仲明和尚可喜)研究」,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專題研究計劃 成果報告』, 2003, 30면.

黃一農, 「歐洲沈船與明末傳華的西洋大砲」,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75-3, 2004, 573-633면.

湯開建, 趙殿紅, 「委黎多《報效始末疏》——一份新發現的澳門早期歷史文獻」, 『澳門研究』26, 2005, 169-175면.

歐陽琛, 方志遠, 「明末購募西炮葡兵始末考」, 『文史』2006 第4期 中華書局

董少新, 黃一農, 「崇禎年間招募葡兵新考」『歷史研究』5, 2009, 65-191면.

Cooper, M., *Rodrigues the Interpreter: An Early Jesuit in Japan and China*, New York: Weatherhill, 1974, pp. 334-357.

부록 I. 「報效始末疏」의 譯註²⁰⁾

住廣東廣州府香山縣²¹⁾ 濠鏡鑿²²⁾議事亭²³⁾ 西洋商舶 臣委黎多²⁴⁾等謹奏，爲曆陳報效始末，仰祈聖鑒事。竊惟多等系西極歐羅巴沿海國土人氏，遵崇造成天地尊主徒斯規教，經商各處，入國問禁，忠信自矢，毫不敢有逾法度。遠在中華西鄙九萬裏，自古不通貢市。恭遇天朝掃逐胡元，聲播及該國，是以多等航海佔風，寒暑六易。正德年間，始達廣海外洋，迄今百二十年，欽承七帝。中外互市相通，每年輸餉二萬二千餘。

廣東 廣州府 香山縣 마카오 議事亭 西洋商舶의 臣 웨이리두어 등은 명령을 받든 始末을 조목조목 진술하기 위하여 삼가 아뢰오니, 우러러 바라옵건대 일을 살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 웨이리두어 등은 서쪽 끝 구라파 연해국 땅의 사람들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존주 예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각처에서 장사를 하니 그 나라에 들어가면 법을 물어보아 스스로 항상 충성스럽고 신의를 지키어 터력만큼도 감히 법도를 어기지 않습니다. 중국 서쪽의 비천한 곳에 9만리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예로부터 무역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天朝가 몽골 오랑캐[胡元]²⁵⁾를 쓸어 쫓아내었던 때를 만나, 그 소식이 저희 나라에 전파되어 와서, 이에 웨이리두어 등이 바람을 타고 항해한지 추위와 더위가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正德年間(1506-1521년)에 비로소 廣東 外洋에 도달하여 지금까지 120년이요 일곱 대의 황제²⁶⁾를 이었습니다. 중국과 외국이 서로 통상을 함에, 매년 낸 세금이 22,000여 냥입니다.

迨至嘉靖三十六年，曆歲既久，廣東撫按鄉紳²⁷⁾悉知多等心跡，因阿媽等賊竊踞香

20) 원문 번역에 도움을 준 臺灣 Academia Sinica의 Institute of Astronomy and Astrophysics의 顏吉鴻 씨에게 감사한다. 원문 번역에 조언을 해준 安向梅 선생에게 감사한다.

21) 孫文의 출생지. 그를 기념하여 현재 中山縣 개명.

22) 澳門以前是個小漁村，她的本名爲濠鏡或濠鏡.

23) senator

24) 이것은 포르투갈어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인데, 이 문서에는 마치 사람 이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25) 元을 말함.

26) 明의 武宗, 世宗, 穆宗, 神宗, 光宗, 熹宗, 毅宗

山縣濠鏡鑿, 出沒海洋, 鄉村震恐, 遂宣調多等, 捣賊巢穴, 始准僑寓濠鏡, 比作外藩子民, 授廩資糧。雖海際窮嶼, 長不過五里, 闊僅裏餘, 祖骸孫喘, 鹹沐皇恩。

嘉靖 36년(1557년)이 되어,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광동의 撫按과 그 지방관들은 모두 웨이리두어 등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데²⁸⁾, 阿媽 등의 해적들이 불법으로 마카오를 점령하고 바다에 출몰하여 항촌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웨이리두어 등으로 하여금 해적들의 소굴을 파괴하게 하니, 비로소 僑民으로서 마카오에 살도록 허락하시고, 外藩의 자식 같은 백성으로 취급하시어 살 집을 주시고 식량을 공급하셨습니다. 비록 바닷가의 궁벽한 곳으로 길이는 5里에 불과하고 너비는 거의 1里 남짓하나, 조상의 유해를 묻고 자손이 숨 쉴 수 있으니, 모두 황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兩季在省²⁹⁾貿易。廣海士民相安無忤, 奈賊黨衆多, 盡心捍禦, 協擒賊首曾一本於海上, 追獲逃奸林道乾於外國。多等商船往來, 多警不已, 請命國主, 移有西洋大銃³⁰⁾保護身命。

(한 해에) 두 계절을 省에서 무역하였습니다³¹⁾. 광저우 바다의 士民들이 서로 편안하여 충돌이 없었으나, 도적의 무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진심으로 방어를 하고, 도적의 수괴인 曾一本을 바다에서 체포하는데 협력하고³²⁾, 도주한 도적 林道乾을 외국에서 추격하여 붙잡았습니다. 웨이리두어 등은 상선(商船)을 왕래시키고 잦은 순찰을 멈추지 않았으며, 西洋大銃을 옮겨다 놓고 身命을 보호할 수 있게 명해 달라고 저희 국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適萬曆四十八年東奴猖獗, 今禮部左侍郎徐光啓奉旨練兵畿輔³³⁾, 從先年進貢陪臣龍華民等商確, 宜用大銃克敵制勝, 紿文差遊擊張燾、都司孫學詩前來購募. 多等卽

27) 鄉吏.

28) 마카오가 海道副使 汪栢에게 매년 500~1,000냥의 뇌물을 주고 마카오에서의 무역을 허가 받은 일을 말한다.

29) 廣東省을 말함.

30) 紅夷砲 즉 culverin을 말하며, 이 문서에서 銃은 大砲를 말한다.

31) 明 조정이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에게 廣州에서 1년에 두 차례 대규모 무역을 허가한 것을 말한다(黃啓臣, 鄭煒明, 1999, 29면).

32) 廿二史劄記 卷36 554 曾一本.

33) 畿輔: 京城 부근.

獻大銃四位及點放銃師、通事、僕僕共十名，到廣候發，比因練軍事務暫停，大銃送至京都，銃師人等仍還歸嶧。

마침 萬曆 48년(1618년)에 동쪽 오랑캐가 창궐하니, 지금의 禮部左侍郎인 徐光啓가 聖旨를 받들어 병사를 훈련시켜서 京畿를 보위하게 되었는데, 지난해에 進貢陪臣 룽고바르디(龍華民) 등이 大銃을 사용해야만 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음을 건의하여 (明 조정이) 이를 결정하였고, 遊擊인 張燾와 都司인 孫學詩에게 문서를 주어 저희에게로 와서 구매하고 모집하게 하셨습니다. 웨이리두어 등은 곧 大銃 4門과 銃師, 통역사, 일꾼 등 총 10명을 바치니, 廣州에 가서 출발을 기다렸으나, 군사를 훈련시키는 사무가 잠시 정지되어 大銃은 京都로 보내고 銃師 등은 이에 마카오로 돌아왔습니다.

天啓元年，奴酋陷失遼左，總理軍需、光祿寺少卿李之藻奏爲制勝務須西銃等事，仍差原官募人購銃，而多等先曾擊沈紅毛劇賊大船隻於電白縣，至是複同廣海官兵撈尋所沈大銃二十六門，先行解進。

天啓 1년(1620년)에 오랑캐가 遼東을 함락하니, 總理軍需、光祿寺少卿인 李之藻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西銃 등이 필요하다는 일을 아뢰어, 이에 원래의 관리들을 파견하여 사람을 모집하고 銃을 구매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웨이리두어 등은 먼저 일찍이 紅毛賊의 큰 배를 電白縣에서 격침한 적이 있었고, 이에 이르러 또 다시, 바다에 빠진 大銃 26門을 廣州의 官兵들과 함께 수색하여 (朝廷에) 먼저 보냈습니다³⁴⁾.

天啓二年春，海賊謝天佑劫掠廣海、電白各洋，多等自備船隻，捉獲賊首黨孽二百餘人，縛送軍門，金牌功票證。

天啓 2년(1621년) 봄에 해적 謝天佑가 廣海、電白의 각 해안을 노략질하니, 웨이리두어 등은 스스로 함선을 준비하여 해적의 수괴와 그 무리 200여 인을 체포하여 軍門에 압송하였으니, 金牌功票가 이를 증명합니다.

夏則紅夷巨寇駕載大小船隻五十餘號，大小銃炮八百餘位，聚衆攻澳，即欲入犯內地，仰荷恩庇，以大銃擊殺四百餘人，溺水死者無算，打沈賊船二隻，賊走退踞彭湖，

34)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黃一農(1996)를 참고하라.

官兵驗實案卷³⁵⁾證。

여름에 紅夷³⁶⁾가 대소 함선 50여 척에 대소 銃砲 800여 門을 싣고 무리를 지어 마카오를 집중 공격하고 곧 (明의) 內地를 침범하여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皇上의 은혜로, 大銃으로 400여 명을 격살하였고, 익사한 자는 무수하며, 적선 2척을 격침시키자, 적들은 도주하여 彭湖³⁷⁾에 퇴각하여 주둔하였으니, 이 사실은 官兵驗實案卷으로 증명됩니다.

伊時半載，盜寇兩侵，闔澳正在戒嚴，多等以先經兩奉明旨嚴催，不敢推辭，遂遴選深知火器銃師、通事、僉伴、兵二十四名，督令前來報效，以伸初志。

반년 뒤에 해적들이 다시 침입하니, 마카오 전체가 계엄 상태에 있었습니다. 웨이리두어 등은, 전에 이미 엄하게 재촉하라는 밝은 聖旨를 두 번이나 받았으므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마침내 火器를 잘 아는 銃師·通譯·僉伴·兵士 24명을 인선하여, 皇上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을 다함으로써 처음의 뜻을 펼치려고 하였습니다.

隨於天啓三年四月到京，奉聖旨：“虜夷速來報效，忠順可嘉，准與朝見犒賞，以示優厚，餘依議行，欽此欽遵”，複蒙賜宴圖形，銃師獨命峨等，在京製造火藥、銃車，教練選鋒，點放俱能彈雀中的。

天啓 3년(1622년) 4월에 수행하여 서울에 도착하여 聖旨를 받드니, “마카오의 오랑캐들이 신속하게 와서 충성을 보이니, 충순함이 가히 칭찬할 만하다. 朝見을 허락하고 賞을 주도록 허락해줌으로써 관용이 깊음을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의논하여 시행하라. 이를 공손히 받들어 시행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銃師인 獨命峨 등이 北京에서 火

35) 官兵驗實案卷은 공문서로 짐작된다.

36) 明代에 중국인들은 유럽인들을 紅夷와 毛夷로 불렀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명명한 것이다. 처음에 동아시아에 진출한 포르투갈인들은 포란치(佛狼機)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십자군 원정 때 중세 프랑크(Frank) 왕국의 이름을 사라센 지역에서 페링기(Feringhi)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한다.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이 초기에 수출했던 대포가 불랑기포로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 이후 네덜란드인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하였는데, 중국인들은 이들의 신체적 특징을 따라 紅夷로 불렀다. 「報效始末疏」에서 마카오 포르투갈인들은 자신들을 네덜란드인인 紅夷로 오인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오의 포란치들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신형 대포는 계속해서 紅夷砲라고 불리웠다.

37) 臺灣과 本土 사이에 있는 섬.

藥, 銃車를 제조하고, 선발된 정예 병력을 가르치니, 大銃을 발사하면 참새도 적중 시킬 수 있었습니다.

部堂³⁸⁾、戎政³⁹⁾、科道⁴⁰⁾等衙門, 悉行獎勵, 隨蒙兵部題請, 複蒙恩護送南還, 諸文稱: “各夷矢心報國, 一腔赤膽朝天, 藝必獻精, 法求盡效, 激烈之氣 可嘉, 但寒暑之氣不相調, 燕、鑿之俗不相習, 不堪久居於此, 應令南歸, 是亦柔遠⁴¹⁾之道也!” 紿優異, 複與脚力回鑿, 許多等子民一視, 咸切感戴⁴²⁾。

여러 행정 관청들의 관리들이 모두 장려하여, 따라서 한편으로는 兵部의 제청을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위하여 남쪽으로 귀환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받으니, 資文에 이르기를, “각 오랑캐는 항상 국가에 보답하려 하고, 일편단심으로 朝天하니, 기술은 반드시 정예로운 것을 바치고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것을 구하여, 격렬한 마음이 가히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寒暑의 기후가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北京과 마카오의 풍습은 서로 익숙하지 못하므로, 오래도록 여기에 사는 것은 견딜 수 없으니, 응당 남쪽으로 돌아가라 명령하는 것이 또한 손님에게 관대한 도리인 것이다.”라고 하셨다. 특별히 급료를 주시고 또한 일꾼들을 주시어 마카오로 귀환하게 하시고, 웨이리두어 등을 자식 같은 백성과 같은 보아주시니, 모두 은혜를 입은 것을 절감합니다.

且聞: 天啓五年, 寧遠城守大銃奏功, 多等報效微忱, 於斯少驗, 豈期天啓七年紅毛結連內賊, 復來犯鑿報仇, 多等又自備船隻出外打退, 焚燒賊船一隻, 生擒紅賊三十二人, 溺水者不計, 解送軍門, 報功卷案證。

또한 들으니, 天啓 5년(1624년)에 寧遠城守⁴³⁾가 大銃의 공로를 아뢰었는데⁴⁴⁾,

38) 部堂: 清代各部尙書、侍郎稱部堂。又各省總督多帶兵部尙書銜者,也叫部堂。

39) 軍政

40) 科道: 明代六科給事中與十三道監察禦史之總稱。

41) 길손에게 관대하라는 관용어구. 柔遠: 安撫遠方的民族. 能爾, 親善近處的人民. 柔遠能邇指籠絡, 善待遠近諸民, 使之誠心歸附. 詩經·大雅·民勞: 式遏寇虐, 懈不畏明. 柔遠能邇, 以定我王. 南齊書·卷三·武帝本紀: 春頒秋斂, 萬邦所以惟懷, 柔遠能邇, 兆民所以允殖.

42) 感恩戴德의 준말.

43) 袁崇煥(1584-1630)을 말함.

44) 1626년(天啓6) 누르하치(1559-1626)가 遼河를 건너 寧遠城을 공격해 왔으나, 袁崇煥(1584-1630)이 포르투갈 상인에게 구입하여 배치한 紅夷砲의 화력을 앞세워 물리쳤다.

웨이리두어 등이 충성을 바친 작은 정성이 이에 작은 징협이 된 것이고, 또한 天啓 7년(1626년)에 紅毛夷가 내부의 적과 결탁하여 다시금 마카오를 침공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니, 웨이리두어 등이 또한 스스로 합선을 갖추어 밖으로 나아가 공격하여 물리쳤고, 적선 1척을 불태웠으며, 紅賊(네덜란드인) 32명을 생포하였으며, 익사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는데, 軍門으로 압송하였으니, 功을 보고한 공문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續聞呂宋、滿刺加等處商船報稱，紅夷盤據北港大灣，離福州海面三百里，築城建台，造載大銃大船四十號，候風犯嶧，漸及中土，在在告急。隨該多等申飭防禦外，茲崇禎元年七月內，蒙兩廣軍門李逢節奉旨牌行該嶧，取銃取人，舉嶧感念天恩，歡欣圖報，不遑內顧，謹選大銅銃三門，大鐵銃七門，並鷹嘴護銃三十門，統領一員公沙的西勞，銃師四名伯多祿·金荅等，副銃師二名結利窩裏等，先曾報效到京通官一名西滿故未略，通事一名屋臘所·羅列弟，匠師四名若盜·的西略等，駕銃手十五名門會等，僕伴三名幾利梭黃等，及掌教陸若漢一員，系該嶧潛修之士，頗通漢法，諸凡宣諭⁴⁵⁾，悉與有功，遵依院道(之)面諭，多等敦請管束訓迪前項員役。

그 뒤에 소문이 들리기를, 필리핀과 말라카 등지에서 商船이 보고하였는데, 紅夷가 北港大灣에 거점을 만들고 福州 해안에서 300里 떨어진 곳에 성곽을 짓고 망루를 세워 大銃을 실은 큰 전함 40척을 건조하고, 바람을 기다려 마카오를 침범하려 하며 점차 中土에 미치려 한다고 여러 번 급보를 보내왔습니다. 웨이리두어 등은 방어를 申飭하는 외에, 崇禎 1년(1628년) 7월내에 兩廣軍門인 李逢節가 旨牌를 받들고 저희 마카오로 와서 銃⁴⁶⁾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니, 전체 마카오는 天子의 은혜에 감읍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답하려 하여 내부의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삼가 大銅銃 3門, 大鐵銃 7門, 그리고 鷹嘴護銃 30門을 선별하고, 統領 1員 곤살버쉬 페이쉐이라, 銃師 4名 빼드루 텔 칸옐 等, 副銃師 2名 結利窩裏 等, 지난번에 일찍이 충성을 다하기 위해 北京에 갔던 통역관 1名 시마옹 꾸엘류, 통역사 1名 오라시우 네레따, 기술자 4名 若盜·的西略 等, 駕銃手 15名 門會 等,僕伴 3名 幾利梭黃 等, 그리고 掌教 로드리게스 1員을 선별하였습니다. 陸若漢은 저희 마카오의 수도사로서 자못 중국의 慣習에 정통하고, 모든 황상의 명령에 참여하여 功

45) 宣旨, 宣諭

46) 여기의 銃은 大砲를 말한다.

을 세웠으므로, 수도원 및 마카오 정부와 상의한 후, 웨이리두어 등은 (그에게) 앞에 열거한 사람들을 統率하고 訓育하는 일을 맡아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一併到廣, 驗實起送, 複蒙兩廣軍門王尊德遣參將高應登解銃, 守備張鵬翼護送, 前來報效, 伏乞皇上俯念遠人兩次進銃進人微功, 並前次多番功績, 懇求皇恩收錄忠勤, 一視如內地赤子, 感戴綏柔。莫大德澤, 倘蒙不鄙末技, 或有任委, 敢不承順, 謹令統領公沙的西勞代控愚衷, 仰祈聖明鑑察, 臣不勝激切待命之至。

함께 廣州에 도착하여 점검하여 배송하게 하였는데, 兩廣軍門인 王尊德가 參將인 高應登을 보내어 銃을 배송하고, 守備인 張鵬翼를 보내어 호송하게 하니 天子의 앞에 나와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皇上께서 멀리서 온 사람이 두 번씩이나 銃과 사람을 바친 작은 功과 함께 저번에 여러 번 功을 쌓은 것을 굽어 살펴주시고, 皇恩이 忠勤을 수록하여 주시고, 內地의 자식처럼 보아 주시어 멀리서 온 피로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한 덕택에 작은 기술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혹시 일을 맡겨 주시면 어찌 감히 충성스럽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統領 폐이쉐이라를 시켜 어리석은 충심을 대신하게 하니, 우러러 기도 하오니 聖明이 鑑察하시기를. 臣은 명령을 기다리는 지극함에 격정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崇禎元年九月十五日具本, 三年正月十七日奏聞, 二十二日奉聖旨: “知道了.” 該衙門知道。

崇禎 1년(1628년) 9월 15일에 題本을 갖추어, 3년(1630년) 1월 17일에 아뢰었고, 22일에 받은 聖旨는 “알았다.” 해당 관청이 알았다.

부록 II. 韓霖의 『守圉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貢銃效忠疏」의 譯註

公沙的西勞係極西歐羅巴波爾度瓦爾國人，家居惟崇奉天地萬物真主，西名陡⁴⁷⁾斯，重理敦倫，奉教守分，頗諳軍火技藝。恭聞天朝德化，遠播四海，公沙國人慕義，兼貿易商販⁴⁸⁾，航海九萬里，繇大西洋達于中華，在廣東香山縣濠鏡澳居住，迄今已一百二十餘年，欽承七朝聖主，俯容納餉效忠。公沙攜帶家眷來澳住，亦三十餘年，在澳人無不感戴天朝厚恩，恨未得當以報。

곤살버쉬 빼이쉐이라는 極西 구라파 포르투갈국 사람아니, 평상시에 천지 만물의 진짜 주인인 서양 이름 예수를 높이 받들어 이치를 중요시하고 윤리를 돈독히 하며 가르침을 받들어 분수를 지키며, 자못 軍事 火器와 기술을 아는데, 삼가 天朝의 德化가 四海에 퍼짐을 듣고, 곤살버쉬 빼이쉐이라의 나라 사람들은 의로움을 흡모하고 겸하여 무역도 하니, 9만리를 항해하여 大西洋을 돌아 中華에 도달하여, 廣東의 香山縣 濠鏡의 마카오에 거주하기를 지금까지 이미 120여 년인데, 일곱분의 황제를 모셨고, 세금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公沙는 가족들을 데리고 마카오로 와서 산지가 역시 30여 년인데, 마카오에 있는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음이 없이 天朝의 두꺼운 은혜를 입고 마땅한 보답을 못함을 한으로 여깁니다.

於崇禎元年間⁴⁹⁾，兵部因奴酋不庭，知公沙等嚮以大銃拒禦紅夷，可以安邊靖虜，遂疏題奉聖旨，到澳取人取銃。

崇禎 1年(1628년)에 兵部가 오랑캐 두목[奴酋]이 不庭하므로, 곤살버쉬 빼이쉐이라 등이 大砲로 紅夷를 대적하여 방어한 것처럼 (遼東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오랑캐를 다스릴 수 있음을 알고, 마침내 상소하여 聖旨를 받들어 마카오에 도착하여 병력과 大砲를 구했습니다.

本澳公舉公沙及伯多祿金荅魯未略等四人，併工匠僕伴等三十二人，賚文上獻大

47) 원문은 (陡+徙)이다.

48) 湯開建 & 趙殿紅(2005)가 제시한 원문에는 敗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 販로 수정한다.

49) 원문에는 間으로 판독되나 문맥상 間의 오자로 보임.

鐵銃七門, 大銅銃三門, 鷹嘴銃三十門.

저희 마카오는 곤살버쉬 레이쉐이라 및 뼈드루 텔 퀸텔, 루웨이루에⁵⁰⁾ 등 4인을 천거하고, 또한 기술자와 시종 32인을 덧붙여서, 뇌문상(賚文上)으로 大鐵銃 7門, 大同銃 3門, 鷹嘴銃 30門을 바쳤습니다.

于二年二月內, 絲廣河進發, 各銃體重難行, 公沙等水土不服, 水陸艱辛, 苦難言訴. 2년 2월 안으로, 廣河를 출발하는데, 각각의 銃들은 무게가 무거워 나아가기가 어렵고 곤살버쉬 등은 風土가 맞지 않아서 물길과 물길을 간신히 진행하니 고통은 말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十月內, 行至濟寧, 忽聶奴虜闖入大安, 已破遵化等城, 兵部奉◇旨差官前來催趨. 公沙等捨舟從陸, 畫夜兼程, 十一月二十三日, 行至涿州, 忽聶◇薄◇都城. 公沙等亟行製藥鑄彈, 豫備禦敵.

10월에 일행은 濟寧에 이르렀는데, 오랑캐가 大安으로 長城을 넘어 이미 遵化 등의 성들을 깨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兵部는 聖旨를 받든 관리를 보내어 皇上 앞으로 올 것을 재촉하게 하였습니다. 곤살버쉬 레이쉐이라 등은 배를 버리고 물을 따라서 밤낮으로 행진을 하여 11월 23일에 涿州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오랑캐가) 都城을 육박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곤살버쉬 레이쉐이라 등은 재빨리 裝藥과 鑄彈을 수행하고 적을 방어할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二十六日, 知州陸燧傳言, 閱郵報, 知兵部奉聖諭: “西銃選發兵將護運前來, 仍偵探的確, 相度進止, 爾部萬分加慎, 不得疎忽, 欽差欽遵.”

26일에 知州인 陸燧가 말씀을 전하기를, 郵報를 읽고 兵部가 聖諭를 받들었음을 알았는데, 그 聖諭는 “西銃은 병사들을 선발하여 보호하여 운반해 오고, 정탐을 정확하게 하여 서로 헤아리며 나아가고 멈추면서 너희는 만분 신중을 기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공손히 받들어 시행할지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于十二月初一日, 行至琉璃河, 忽聶警報, 知良鄉已破, 因前無據守之地, 回轉涿州.

50) 歐陽琛, 方志遠(2006)은 발음상의 유사성으로부터 Laurenzo de Lis Veglio이란 인물로 동정하고 있다.

此⁵¹⁾時州城內外士民，怖賊勢兇，咸思束裝逃避。公沙同掌教陸若漢，都司孫學詩會同知州陸燧，及鄉宦原任太學士馮銓商議急將取來大銃，分布拒守。星夜入藥裝彈，推車登城，四門點放試演。聲似轟雷，四遠震駭，人心有恃而安。

12월 초 하루에 琉璃河에 이르니,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들으니, 良鄉이 이미 격파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앞에는 근거 삼아 지킬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돌이켜 涿州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涿州城 안팎의 士民들은 적세가 흉악한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짐을 꾸려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곤살버쉬 뼈이쉐이라와 掌教인 로드리게스, 都司인 孫學詩와 知州인 陸燧, 그리고 낙향한 原任太學士인 馮銓과 함께 상의하여 급히 大銃을 가져다가 배치하여 수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밤에 탄약과 탄환을 장전하고, 수레를 밀어 성위로 올려가서, 네 대문에서 발사 연습을 시행하였습니다. 大銃 소리가 우레 같아서 사방의 멀리까지 진동하니, 인심이 이를 믿고 안정되었습니다.

◇賊聳聲而阻，不敢南下，于遠隔二十餘里地扎⁵²⁾營，逡巡北退。

(오랑캐) 적들이 이 소리를 듣고 주저하여 감히 남하지 못하고, 20여리 밖에 멀찌감치 군영을 구축하였다가 뒷걸음질 쳐서 북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霖按: 古有以◇攻◇之策，然未有以九萬里外人効⁵³⁾忠中國如公沙的西勞者。已之變，微涿州固守，◇長驅如破竹矣。公沙之過彭城也，資斧適竭，余兄景伯爲彭城守，念◇逼都門，助二百金，適其行，中途阻滯，想天意使守涿，爲神京護衛耳。公沙後守登州，以死報國，贈參將。余辛未計階，晤于都門，贈以詩云：

鯤鵬居北溟，海運則南徙。

蜩與鶯鳩唉，安以九萬里。

何謂漆園生，憑虛談厥理。

今親見其人，西方之彼美。

韓霖이 생각하기를, 옛날에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공격하는 책략이 있었다. 그러나 9만리 바깥의 사람으로서 곤살버쉬 뼈이쉐이라처럼 중국에 충성을 바친

51) 원문에는 比이나 의미상 此인 듯.

52) 원문은 札로 판독되나 문맥상 扎의 오자로 본다.

53) 效의 俗字.

자는 없었다. 已巳之變에 약간 淮州를 고수하였으나, (오랑캐는) 파죽지세로 깊숙이 들어왔다. 곤살버쉬 페이쉐이라가 彭城을 지남에 자금과 무기가 때마침 다하였는데, 나의 형님인 景伯⁵⁴⁾가 彭城守였는데, (오랑캐가) 都城의 문을 텁박함을 보고 200金을 지원하여 그 행군이 중도에 지체되는 것을 빠르게 하였으니, 하늘의 뜻이 淮州를 지킴으로써 신령스러운 都城을 호위하게 함이로다. 곤살버쉬 페이쉐이라는 뒤에 登州을 지키다가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고 參將에 追贈되었다. 나는 辛未年(1631년)에 벼슬길에 나아가[計階]하여 都城 문에서 그를 만나 詩를 주었는데,

鯤鵬은 北溟에 살고, 바다를 움직여 남쪽으로 옮겨 가네
 매미와 멧비둘기가 울어도 어찌 구만리를 날겠는가?
 옷칠한 정원에서 난 사람이라 헛된 論論에만 의지하여 도리는 厥하네.
 이제 그 사람을 몸소 보니 西方의 저 아름다움이여.

(在首)神宗朝聲教訖四海, 西儒始來賓, 昭事以爲指, 我皇繼祖緒, 四表重光
 被⁵⁵⁾, 蠲爾◇左◇⁵⁶⁾, 蟬臂不自揣. 西儒沐皇恩, 憎彼四郊⁵⁷⁾壘, 桓赳海外人堪爲天
 子使. 上兾廷臣言, 用之慰拊髀⁵⁸⁾, 允塞⁵⁹⁾哉王猷. 獄◇如虱蟣, 我從西儒游, 談天
 如測蠡⁶⁰⁾, 今與西帥交, 談兵如聚米⁶¹⁾. 鄙哉, 井中蛙, 寧不羞弧矢. 聖代柔遠人⁶²⁾,
 重譯安足比.

옛날 神宗朝에 성스러운 교화는 四海에 이르러, 서쪽의 선비가 비로소 방문

54) 韓霖의 형이다. 알레니로부터 Étienne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55) 光被: 빛이 널리 퍼짐. 덕택이 널리 퍼짐.

56) 여기에 삭제되어 ◇로 나타낸 글자도 이 문건의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夷자로 본다.

57) 四郊: 도성 밖 사방의 교외.

58) 摵髀: 넓적다리를 두들김. 奮起하는 모양. 또 기뻐서 날뛰는 모양.

59) 允塞: 아주 성실하여 조금도 거짓이 없음.

60) 蠷測: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측량함. 곧 천박한 식견으로 심원한 이치를 해아리는 비유. 以蠡測海.

61) 聚米: ① 마원(馬援)이 광무제(光武帝) 앞에서 쌀을 모아서 산과 골짜기를 만들어 지형과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광무제가 “오랑캐가 내 눈 안에 들어왔다.”고 기뻐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② 후세에는 보통 지세(地勢)의 모형(模型)의 뜻으로 쓰이며, 군사를 분석, 설명할 때 흔히 사용.

62) 柔遠人: 편안히 할 柔. “柔遠人” — 《中庸》

하니, 일을 비추어 가리키자면, 우리 황제께서 祖宗의 계통을 이어 사방에 다시
덕택이 널리 퍼지는데, 어리석도다 이리저리 蠢動하는 오랑캐들이여, 蟬蠅의
팔과 같이 스스로 해아리지 못하는구나.

서쪽의 선비가 황제의 은혜를 입어, 분발하여 그는 교외 사방에 성을 쌓으니,
굳세고 용감한 해외의 사람으로서 天子의 使者가 될 만하다. 임금께서 허락하
시고 朝廷의 大臣들이 말하기를 “그를 등용하여 위로하고 어루만져서 奮起하
게 하니, 성실하고 진실 된 것이야말로 왕의 도리입니다.” (오랑캐를) 모조리 죽
임에 마치 이를 죽이는 것 같으니, 내가 西儒를 따라 노닐며 天文을 담론함에
마치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측량하는 것과 같았더니, 오늘 서방의 장수[西帥]와
서로 사귀며 軍事를 담론하니 마치 쌀로 지형을 설명한 馬援과 같네. 어리석구
나, 우물 안에 개구리들아, 어찌 활과 화살이 부끄럽지 않느냐. 성스러운 임금
의 시대에는 멀리서 온 사람을 편안하게 하니, 重譯이 어찌 족히 견줄 만하겠는
가.

Abstract

Two Diplomatic Documents Related with the Second Purchase of Culverin from Macao by the Ming Dynasty:
The Loyalty Report and *the Cannon Report*

Ahn, Sang-Hyeon

The detailed commentary translations of *the Loyalty Report* and *the Cannon Report* into Korean are provided. These reports describe the facts that the government of the Ming dynasty bought culverin cannons from the Portuguese in Macao. *The Loyalty Report* was written in 15th day of the ninth month in 1628 by senate of Portuguese in Macao, and was submitted to the Ming dynastic government in the 17th day of the first month of 1630. The latter or *the Cannon Report* was written by João Rodrigues and submitted along with *The Loyalty Report*. The former insists that the residence of Portuguese in Macao should be legalized under the law of the Ming dynasty, and also that the newly-rising Netherlands should be excluded by the government of the Ming dynasty. The latter describes in detail the itinerary of the Portuguese military delegate from Macao to Beijing. *The Cannon Report* briefed with comments by Han Lin describes the whereabouts of Teixeira and Rodrigues after meeting the ambassador Chong.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Teixeria and others died in Dengzhou battle with rebellions during the Wuqiao rebellion of 1631 to 1632, and Rodrigues desperately escaped from Dengzhou and finally returned back to Macao to die a few month later. Thus, even if the ambassador Chong's proposal to learn the production method of both culverine and niter through Rodrigues had been accepted by the Choson government, the proposal could not be carried out.

Keywords: Macao, Portugal, Culverin cannon